

#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오년호 | 부연구위원  
oh.n@krei.re.kr

김태후 | 연구위원  
taehoo82@krei.re.kr

##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물가안정대책 진단과 과제

### KEY MESSAGE

- 품목별 맞춤 전략과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정밀한 수급 관리 및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 체계 구축 필요

### SUMMARY

- 명절 전후로 일시적인 농축산물 가격 상승 및 하락 패턴이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편적 할인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품목별 맞춤 전략 수립 및 가구 특성 기반의 선별 지원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
-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정밀한 수급 관리와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와 유통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 필요

# 01 설 명절 농축산물 물가 추이



## 단기·장기 농축산물 물가 흐름

### | 2026년 설 명절 농축산물 물가, 지난 추석 명절 대비 전반적으로 안정적

- 2026년 설 명절을 앞둔 농축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지난 추석 명절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품목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함.
- 쌀 가격은 지난 추석을 앞두고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수확기 이후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다만, 12월 이후 산지 쌀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수준과 원료곡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정부양곡 대여 등 추가적인 수급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가격은 추석 이후 하락하여 추석 명절 대비 약 10% 낮은 수준에서 형성됨.
- 무와 배추의 경우 지난 추석을 앞두고 일부 가격 상승이 관찰되었으나, 이후 가격이 안정되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뚜렷한 가격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 과실류 가운데 사과는 수확기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배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2020~2025년 농산물 물가 연평균 약 4.8% 상승<sup>1)</sup>

- 2020~2025년 농축산물 물가는 연평균 약 4.8%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같은 기간 생산비, 유통비용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농축산물 가격에 지속적으로 전가된 결과로 보임.
- 부문별로 살펴보면, 품목별 편차가 두드러짐. 2020~2025년 곡물(2.7%), 채소(3.9%), 기타농산물 (4.0%) 등의 물가는 연평균 2.7~4%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축산물(4.3%)과 과실류(8.3%)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특히, 과실류의 가파른 상승세는 냉해·장마·폭염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sup>2)</sup>와 생산<sup>3)</sup>·유통<sup>4)</sup> 과정의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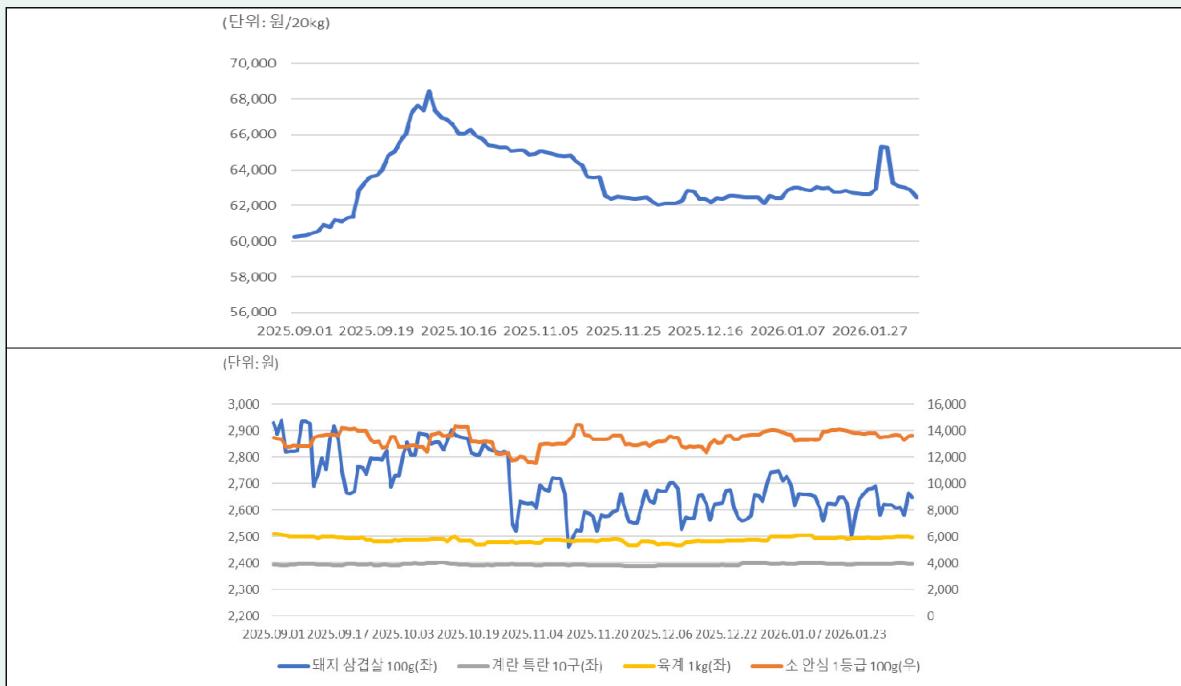
1)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소비자물가조사, 검색일: 2026. 1. 26.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과일”, 농업관측, 2025년 11월호.

3)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검색일: 2026. 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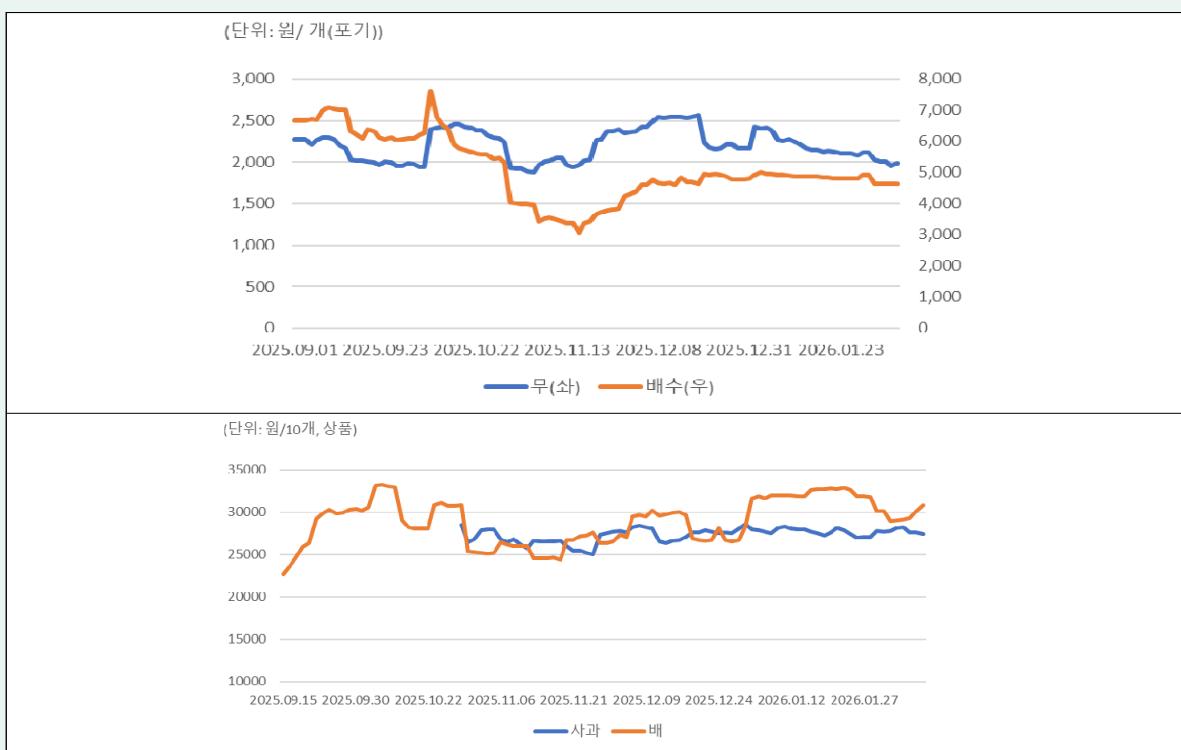
4) KAMIS(<https://www.kamis.or.kr/customer/circulation/domestic/analysis.do>), 국내유통실태, 검색일: 2026. 1. 26.

### 〈그림 1〉 '25년 9월~'26년 2월 쌀(상), 축산물 주요 품목(하) 일별 소매가격 추이



자료: KAMIS(<https://www.kamis.or.kr/>), 세부가격조사, 검색일: 2026. 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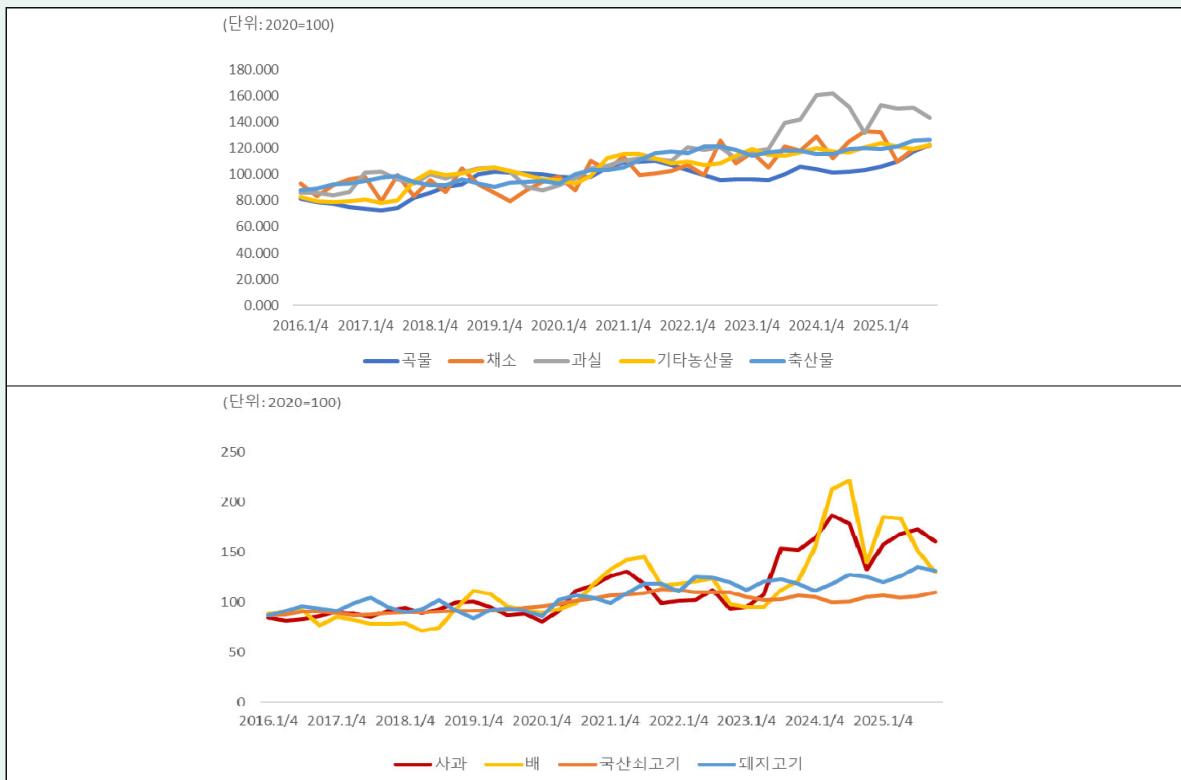
### 〈그림 2〉 '25년 9월~'26년 2월 채소류(상), 과일류(하) 주요 품목 일별 소매가격 추이



주: 사과의 소매가격은 8월 28일~10월 28일, 배의 물가안정은 8월 20일~9월 14일 일별 통계 없음.

자료: KAMIS(<https://www.kamis.or.kr/>), 세부가격조사, 검색일: 2026. 2. 9.

〈그림 3〉 분기별 농축산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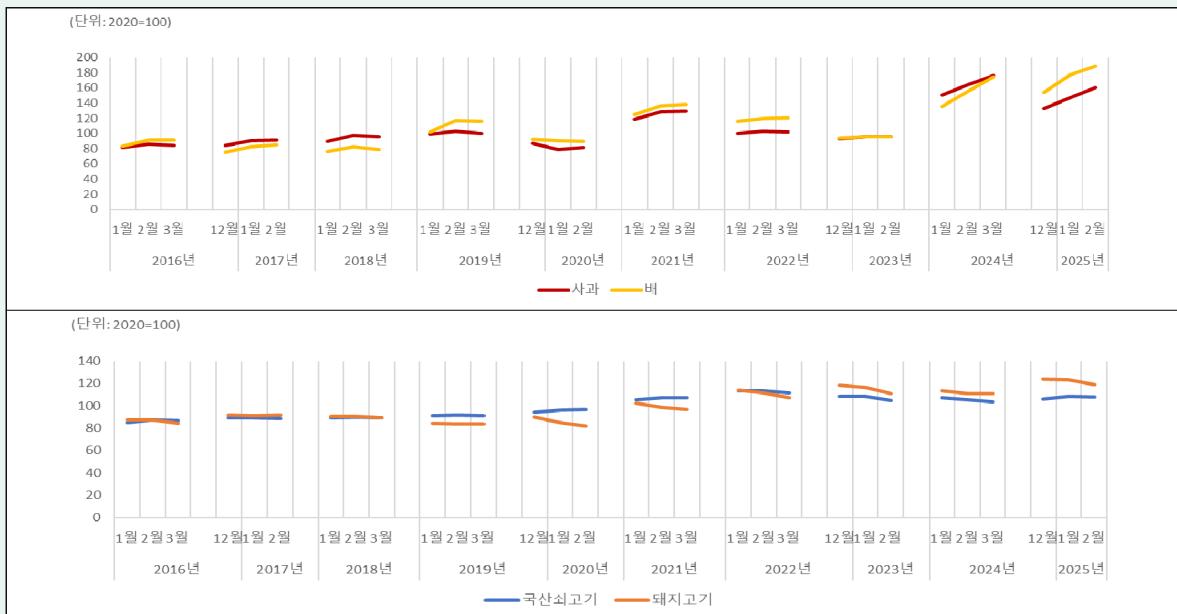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소비자물가조사, 검색일: 2026. 1. 26.

### | 명절 기간 일시적 가격 상승 이후 하락 패턴의 변화

- 2016~2025년까지 명절 주요 성수품(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는 설 명절 직후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음. 하지만, 2024~2025년 들어 사과와 배 등 과실류는 설 이후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설 이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만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과(大果) 생산이 감소<sup>5)</sup>하면서, 시장에서 상품과 중품 간 가격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즉, 과실 전체 수요는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품질 좋은 대과 물량이 줄어들면서 등급 기준 상품은 평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됨. 반면, 중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상이 나타남. 따라서 설 이후 단경기로 갈수록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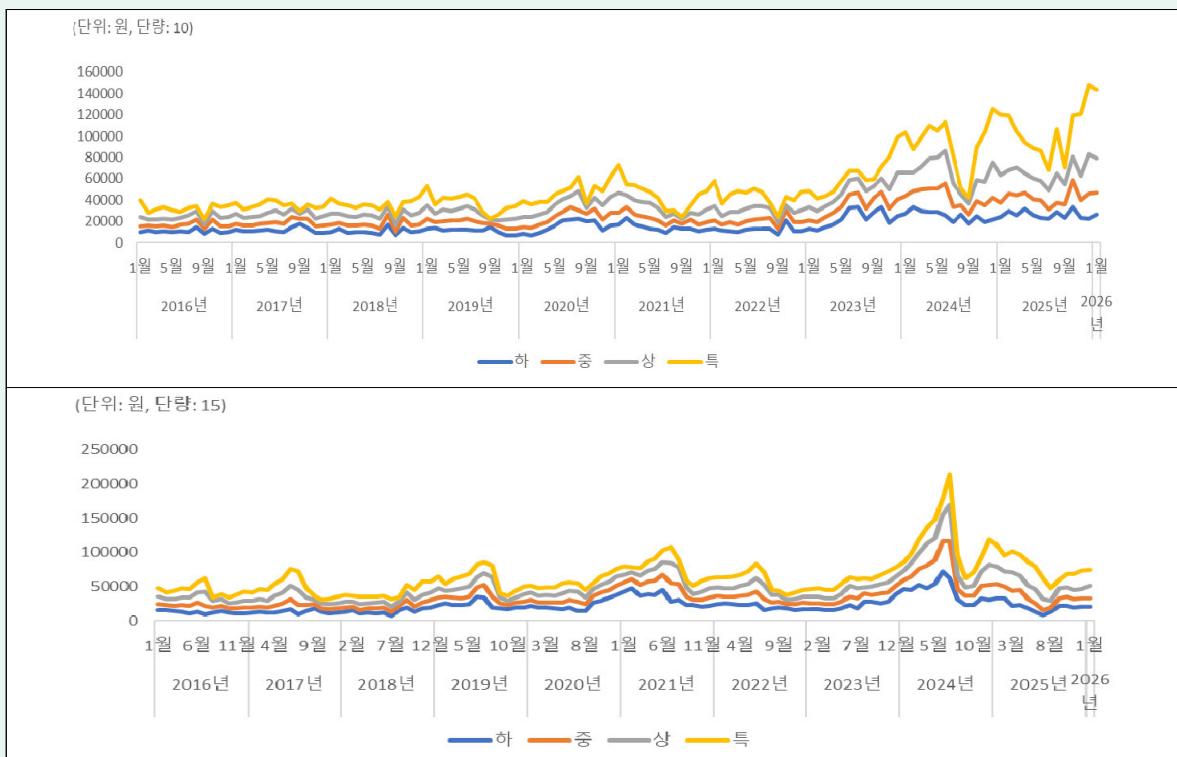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과일”, 농업관측, 2025년 11월호.

#### 〈그림 4〉 설 전후 월별 농축산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20=10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소비자물가조사, 검색일: 2026. 1. 26.

#### 〈그림 5〉 사과(상), 배(하) 등급별 가락도매시장 가격 추이



자료: KREI OASIS(<https://oasis.krei.re.kr/>), 가격유통정보 – 가락도매시장, 검색일: 2026. 2. 3.

## 02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현황

#### |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확대함. 정부 비축 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방출하며,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여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임.
- 특히, 설 전 3주간을 수급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협동 '수급안정 대책반'을 가동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함.

#### | 할인 지원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해마다 할인 지원책을 추진함. 2020년까지는 온·오프라인 직거래 채널(직거래장터, 농협·산림조합 판매장,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성수품, 선물세트 등의 할인 판매를 지원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전국 유통망(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지원이 시행됨.
-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2배 확대한 590억 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도 700억 원 규모로 할인 지원을 확대하였음. 2026년에는 566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발표함.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정부 지원(20~30%)과 업체 자체 할인(10~30%)을 결합하여 최대 30~60%의 할인을 제공함. 이 외에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현장에서 환급(최대 2~3만 원)해 주거나, 30% 할인된 가격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있음.
-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돋기 위해 성수품, 선물세트 가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함.

### 〈표 1〉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물가 관련 대책(2018~2026년)

연도	성수품 공급 확대 규모	공급 확대 품목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	할인 지원 품목	주요 내용
2018	평시 대비 1.4배	설 성수품, 선물세트	-	설 성수품, 선물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거래장터,</li> <li>농협·산림조합 특판장 운영</li> </ul>
2019	평시 대비 1.4배	(상동)	-	(상동)	(상동)
2020	평시 대비 1.3배	(상동)	-	(상동)	(상동)
2021	평시 대비 1.4배	(상동)	-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축산물 할인 지원</li> <li>유통·식품업체 자체 할인</li> <li>자조금·농협 등 생산자단체 할인</li> </ul>
2022	평시 대비 1.4배	(상동)	150억 원	(상동)	(상동)
2023	평시 대비 1.5배	(상동)	161억 원	설 성수품 포함 16개 품목	(상동)
2024	평시 대비 1.6배	(상동)	590억 원	설 성수품 포함 20여 품목	(상동)
2025	평시 대비 1.6배	(상동)	700억 원	설 성수품 포함 31개 품목	(상동)
2026	평시 대비 1.7배	(상동)	566억 원	설 성수품 포함 13개 품목	(상동)

주: 설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대추, 밤 등의 품목을 의미함. 2026년에는 사과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 1. 26.),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 1. 14.),

“황금돼지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도록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1. 7.),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 1. 20.), “농식품부, 설 성수품 공급확대와 소비진작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 1. 6.), “농식품부, 설 성수기 체감 물가안정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 1. 4.), “농식품부, 설 장바구니 물가안정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1. 16.), “설 성수품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 1. 16.), “농식품부, 설 성수기 정부 할인 지원 총액 7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소비자부담 완화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 1. 28.),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등 참고하여 작성.

## 〈표 2〉 2026년 유통·식품업체 자체 할인 주요 내용

구분	할인율	주요품목
농협 하나로마트	~65%	·(설 특판 행사) 선물세트, 설 성수품 등 최대 50% 할인 ·(설 물가안정 특별 할인 행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최대 65% 할인
농협 농협몰	~60%	·(설 특판 행사)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 ·(설 물가안정 특별 할인 행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최대 60% 할인
이마트	20%	
롯데마트	20%	
홈플러스	25%	·배추, 무, 시금치, 감귤, 배, 포도, 쌀,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밤, 대추
GS리테일	25%	
메가마트	20%	
이랜드 킴스클럽	26%	
대형온라인몰(특딜 등)	6%	·배추, 무, 시금치, 감귤, 배, 포도, 쌀,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밤, 대추
중소형마트(서원유통 등)	10~20%	·배추, 무, 시금치, 감귤(만감류), 배, 포도 등
친환경매장(새농 등)	10~15%	–
직매장(세종로컬푸드 등)	23%	–
중소온라인몰(컬리 등)	7~10%	·제철, 설 관련 품목
전통시장(온누리시장 등)	30~80%	·선물세트, 농축산물
농심·오뚜기·팔도	~50%	·라면류 최대 50% 할인
CJ제일제당	~75%	·밀가루, 두부, 소시지, 햄, 돈가스 최대 50%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및 조미료 50% 할인 ·즉석밥, 즉석식품 등 75% 할인 ·김치류 최대 55% 할인
대상	~55%	·김치류 최대 55% 할인
오리온	~50%	·생수 최대 50% 할인
롯데칠성음료·동서식품	~50%	·커피, 탄산음료 등 최대 50% 할인
남양유업·빙그레·매일유업	50%	·커피류 50% 할인
풀무원	~30%	·만두, 간편 조리식 등 최대 30% 할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 1. 28.),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경향신문(2026. 2. 6.), “설 앞두고 라면·밀가루·두부 최대 50% 할인...즉석식품은 최대 75% 할인”.

# 03 향후 개선 방안



## 농축산물 물가안정의 구조적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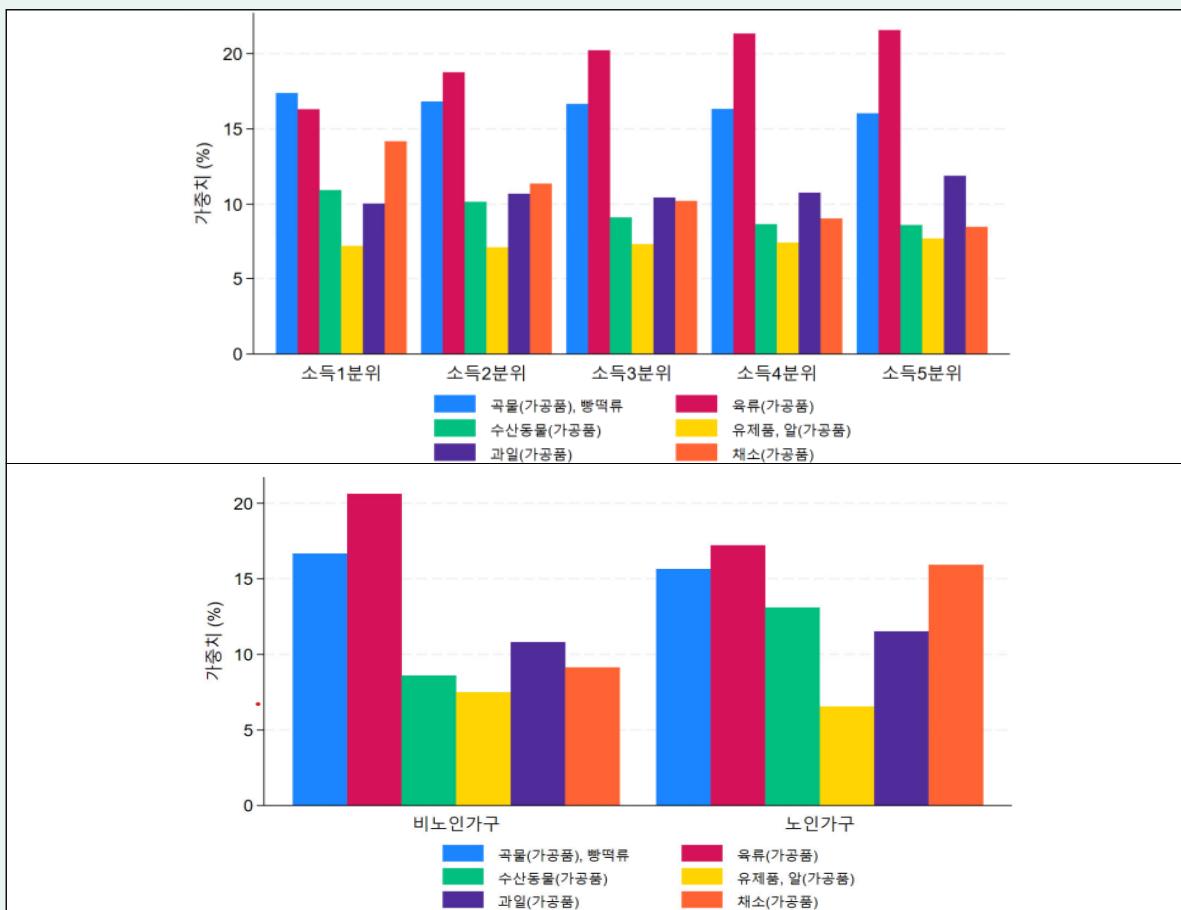
### | 기존 명절 물가안정 대응 체계의 한계 및 지속가능성 점검 필요

-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라는 캠페인으로 처음 시행되었음. 하지만, 소비 촉진 목적으로 시행된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농축산물 할인 지원은 단기적인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확실하나, 이는 재정 투입을 통한 일시적 보전 방식임. 기초 가격 자체가 이미 높게 형성된 과실류의 경우, 지원 종료 직후 가격이 다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가격 안정과는 거리가 있음.
- 오랜 기간 유지해 온 ‘10대 성수품’ 중심 관리 방식은 행정적 효율성은 높으나, 최근처럼 품목별 물가상승률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우려가 존재함. 향후 설 명절 물가 대책으로 일률적인 공급·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품목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특히 수급 탄력성이 낮은 과실류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비중을 높이고,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연간 수급 상황을 고려한 연중 물가 관리 로드맵 설정을 고민해야 함.

### | 농식품 물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향 재편 검토 필요

- 고물가가 상시화되는 구조 속에서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할인 지원은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온라인·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채널을 통한 전 국민 대상 지원보다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등 가구 특성과 연계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대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식은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소득분위별(상), 노인 가구별(하) 전체 농식품 소비지출액 대비 주요 품목 소비 비중



자료: 연광훈 외(2025),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예를 들어, 연광훈 외(2025)<sup>6)</sup>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와 노인 가구의 사과 지출 비중이 고소득 가구와 비노인 가구, 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사과 물가 상승에 저소득 가구와 노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함.
- 품목별 농식품 가격 상승에 대해 가구 특성별 체감도가 다르므로, 명절 기간 일시적 할인을 넘어 물가 급등기에 취약계층의 필수 영양 섭취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농식품 정책 설계를 고민해야 함.

6) 연광훈 외(2025),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과제

- 향후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넘어, 농축산물 수급·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민간 비축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공공 비축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됨. 현재 민간 유통 주체가 보유한 재고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비축 물량에 대한 정밀한 관리를 통한 정책 대응의 정밀도 제고가 필요함.
- 또한, 1인 가구 증가, 소량·프리미엄 소비 확대, 새벽 배송 확산 등 소비자 선호와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기존의 대량 공급·대형 유통 중심 정책만으로는 변화된 소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품목별·유통 채널별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이와 함께 새벽 배송 확산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아울러 축산물 수직계열화로 인한 시장 집중도 및 독과점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함. 일부 축산물 품목에서는 생산-도축-가공-유통이 특정 기업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농협과 식품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물가안정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감수 김상효 연구위원 061-820-2218 skim@krei.re.kr  
내용문의 오년호 부연구위원 061-820-2268 oh.n@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이슈+

## 제46호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물가안정대책 진단과 과제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